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11. 20.(금) 석간[온라인: 11. 20.(금) 14: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AI스팸정책팀 강동우 팀장(전화: 061-820-1610, 전자우편: kdw1017@kisa.or.kr) AI스팸정책팀 김아련 주임(전화: 061-820-1618, 전자우편: aryeonkim@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악성 문자 5억 건·스팸 전화 1,200만 건, 이용자 수신 전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회 개최… 공공·민간 협력 성과 공유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 스팸 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회'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했다고 2026. 11. 20.(금) 밝혔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스팸 데이터 개방 협력 기관·기업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불법스팸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6년 불법스팸 유통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 개방 추진 현황 ▲분야별 스팸 데이터 활용 사례 및 주요 성과 등이다.

최근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 불법도박·불법금융·불법의약품·불법성인물·피싱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신고한 대규모 스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분류·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해 불법스팸 관련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스팸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 연계, 전화번호 이용정지, 인터넷주소(URL)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스팸 신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차단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 3월 삼성전자와 함께 출시한 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스팸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약 5억 건의 악성 문자를 이용자가 수신하기 전에 차단했다.

* 악성 메시지 차단 서비스 소개 : https://bit.ly/4uxGT1p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음성스팸 데이터를 엘지유플러스와 공유해 엘지유플러스의 인공지능 통화 서비스 '익시오(ixi-O)'의 스팸 전화 분석 정확도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익시오'가 분석·추출한 스팸 발신 번호를 공유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연계했다. 그 결과 협력 시작 3개월 만에 약 1,200만 건의 스팸 전화를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신대규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스팸 데이터 개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공지능 분석 기술과 분야별 전문기관의 대응 역량,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분석과 데이터 개방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감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